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12월의 책 조지 오웰 ‘동물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 독재와 권력욕 향한 통렬한 풍자

타계 70주기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  
동물들 주인공으로 전체주의 비판  
개그맨 고명환과 유튜브 ‘복토크’ 중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는 스스로 돼지가 된 한 사내가 주인공이다. 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공군 조종사였던 그는 파시즘에 반대하며 돼지가 된다. 전쟁을 싫어하는 그와 주변인물들이 엮여가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래픽, 히사이시 조의 음악, 여주인공 지나가 카페에서 부르는 ‘체리의 계절’ 등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돼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빼놓을 수 없다. 우화(寓話) 형식을 빌려온 ‘동물농장’은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혁명을 이루고 이상 사회를 건설한 동물 공동체가 어떻게 변질되어가는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인간들에게 부림을 받으며 노예처럼 일만하던 양, 개, 말, 소, 닭 등 동물들은 어느 날 늙은 수탉 지메이지의 연설을 듣고 인간을 몰아내는 혁명을 통해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의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특권을 잡기 시작한 돼지들은 권력을 앞세워 군림하고, 혁명에 참여했던 동물들은 하나 둘 죽어 사라지며 또 다른 독재에 시달린다.

지난 1월 타계 70주기를 맞은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의 대표작인 ‘동물농장’은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디스토피아 소설 ‘1984’와 함께 그의 존재를 각인시킨 문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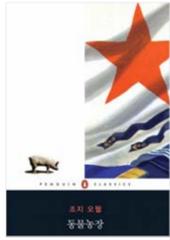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2월의 책으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선정됐다.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독재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늙은 수탉 한 마리가 인간의 야비함을 지적하며 혁명을 호소하자 동물들은 분노에 휩싸여 혁명을 일으키고 인간들을 축출한다. 동물들은 ‘동물주의’로 명칭 평등한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하지만, 돼지들이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로 주도권을 잡고 스스로 세운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는 특권층이 되어, 동물주의의 사회는 결국 독재 사회로 전락한다. 독재로의 변질을 막기에는 다른 동물들이 너무 무지하였고, 지도자에게 너무 쉽게 현혹되었다. 인간의 독재를 뒤집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동물들의 혁명 정신은 돼지들의 선민의식과 일반 동물들의 무지가 얽혀 인간이 지배할 때보다 더 심한 착취가 가해지는 독재로 회귀하였다.”

최 교수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다.

1945년 첫 출간된 ‘동물농장’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열렬히 읽히는 이유는 사회비판 문학의 최선봉에 섰던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세력이 ‘특정 시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때문일 터다. 인류의 탄생 후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꾸준히 나타났고, 앞으로도 반복될 독재와 전체주의, 권력욕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자 풍자로 사회 부조리에 메스를 들이대는 이 작품은 그래서 언제나 유효하다.

‘동물농장’은 민음사, 열린책들 등 세계문학시리즈를 통해 출판됐으며 문학동네판은 ‘동물농장’



과 함께 ‘파리와 런던의 마지막’을 묶어서 펴냈다.

확고한 정치적 신념으로 글을 써온 조지 오웰은 소설, 에세이, 르포, 평론 등 700편의 글을 남겼다. 특히 그의 글은 ‘현장성’이 돋보인다. 1920년대 경제공황 당시 식당 접시닦이 등 자신이 겪은 밑바닥 생활의 참상을 담아 펴낸 ‘파리와 런던의 바닥생활(따라지)’, 스페인 내전 참전 후 전쟁의 어리석음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담아 펴낸 ‘카탈로니아 찬가’는 르포 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또 ‘나는 왜 쓰는가’ 등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을 엮은 ‘조지 오웰 산문선’도 열린책들 세계문학시리즈로 나왔으며 70주기를 맞아 프랑스 만화 작가들이 그의 삶과 시대를 작품세계를 재현한 그래픽 전기 ‘조지 오웰’도 눈길을 끈다.

함께 읽으면 좋을 또 다른 소설 ‘1984’는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존 허트와 리처드 버튼이 주연을 맡고 ‘일 포스티노’의 마이클 레드포드가 메가폰을 잡은 동명의 영화로도 만날 수 있다.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와 ‘동물농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복토크’가 열린다.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삼새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12월 둘째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작가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지 오웰

## 예능



### 언택트 송년 ‘아듀 코로나 2020, 예술로 위로 받다’ ‘미술대중화 아이콘’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 초대석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고단했던 한해였다. 코로나가 일상화된 ‘위드 코로나’ 시대, 어렵게 마련된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로 지친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12월호는 특집 ‘아듀 코로나 2020, 예술로 위로 받다’를 준비했다. 모두가 분투했던 한 해, 문화예술을 만났던 애절한 순간을 돌아보고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연말 전시·공연과 언택트 송년을 위한 책·영화를 소개한다. 자연의 결박과 예술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해넘이·해돋이 보러가는 길에 만나는 미술관도 안내한다.

예능 초대석이 만난 인물은 ‘미술대중화의 아이콘’ 미술사학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다. 양 교수는 출판과 강연을 통해 미술 속에 담긴 이야기를 끄집어내 대중들에게 들려준다. 14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흑사병이라는 위기를 거름삼아 꽃피었다. 중세 팬데믹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시대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색한다.

‘컬릭, 문화현장’은 문화발신지로 떠오른 ‘김넷과’로 안내한다. 수십 여년 전 의술로 환자들을 진료했던 병원이 이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예술로 치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광주대인시장 인근에 자리한 코발트색 건물인 ‘김넷과’가 바로 그곳으로 아트콘서트,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발신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엔 청년작가 공모전, 중견작가 후원 등 지역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통론’ 문화메세나로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바깥 나들이가 조심스

러워진 상황이다. 지면으로나마 여행의 아쉬움을 대신해야 할 것 같다. ‘짜뭇짜뭇 남도 한바퀴’는 ‘기(氣)의 고장’ 영암을 다녀왔다. 2200여 년의 역사를 헤아리는 구름 전동마을, 달이 뜨는 아름다운 산 월출산은 영암의 또다른 이름이다. 죽정마을 돌담길과 빨강계곡은 금정마을 대봉강 흥시는 남만 영암을 떠오르게 한다. 한해의 끝자락, 역사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영암으로 언택트 겨울 여행을 나선다.

어느 새 2020년의 끝자락이다. 유독 아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지만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준 건 문화가 아니었나 싶다. 송년호에서는 문학·출판, 미술, 공연, 영화 등 올 한해 문화계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맘때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밝고 경쾌한 리듬에 괜히 어깨가 들썩여진다. 연말은 역시 재즈의 계절이다. 송년 기획 ‘재즈에 빠지다’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재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이야기도 전해 듣는다.

이외에 간결한 조형이 인상적인 양주시립작곡진미술관, 오래된 한옥 주택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갤러리가 된 주택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광주YMCA 100년의 역사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 등 다채로운 문화소식도 담았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021시즌 복귀를 준비하는 KIA타이거즈 심동섭·김유신 선수와 영화 ‘워낭소리’ 이후 10년만에 신작 극영화 ‘매미소리’로 돌아온 이종렬 감독과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무등길 예술산책 ‘현실을 보는 감정’

홍림스튜디오 입주 박기태·박성완·김병현 전... 1일~13일 국윤미술관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지역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공간 홍림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 ‘무등산’을 주제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이어 받고, 공간적 장소는 학운동 배고픈 다리까지 확대한 ‘무등길 예술산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작가와 기획비평가를 매칭해 신진작가의 창작과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창작자와 기획자 간 상생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홍림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결과 발표전이 12월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2기에는 박기태·박성완 작가와 김병현 기획자가 입주해 활동했다. ‘현실을 보는 감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5점과 입체 5점, 전시 글이 함

께 선보인다.

자신의 삶터와 공시장 풍경을 오랫동안 화폭에 담은 박성완 작가는 프로그램 주제에 맞춰 홍림교부터 중심전 일대의 다양한 풍경을 과감한 색채와 터치로 보여준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을 모티브로 작업해온 박기태 작가는 화려한 모델에 대한 외형적 동경이 아닌 스스로 삶의 표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와 가벼운 스티로폼 재료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

평문을 작성한 김병현 기획자는 박성완 작가의 경우 눈에 보이는 일상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덧붙여 현실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자서전적 그림을 완성해 낸다고 평했다.

또 박기태 작가는 런어웨이 위의 모델을 통해



박성완 작 '기도 입구 밤 해와'

허위와 거품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과 스스로의 삶에 솔직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민포럼, 청년문화·청년창업 조명

청년문화, 청년창업 등 청년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포럼이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시민포럼 2020#1 ‘청년, 도시를 바꾸다’와 광주시민포럼 2020#2 ‘로컬콘텐츠와 광주형 청년창업’이 그것.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주)도시문화집단, 도시콘텐츠연구소, 광주대도시재생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진행한다.

먼저 3일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청년, 도시를 바꾸다’ ‘50년 전 광주시민회관 청년문화와 결합하다’ (우승환 박사), ‘도시재생과 청년활동’ (전우선 박

사), ‘청년의 활동과 도시 이야기’ (홍동우 대표) 등이 다뤄진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로컬콘텐츠와 광주형 청년창업’ 포럼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골목상권, 사례와 시사’ (김경민 박사), ‘로컬크리에이터에 기반한 창업도시 만들기’ (윤현석 박사), ‘영등포와 울릉도 도시를 살리는 청년창업’ (박주호 대표) 등이 발표된다.

두 포럼은 사전등록자(20명 이내)만 대면 참석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라운드테이블(문화도시 광주 청년이 만든다, 로컬콘텐츠와 광주형 청년창업)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